

붉은말의해 영암 달력 인문으로 '그득그득'

영암군, '군민 누구나 문화관광해설사' 목표... 연중 인문학 활성화 나서

2027년을 '영암방문의 해'로 정한 영암군이, 올 한 해 지역의 역사·사람·자연·살을 재해석하는 '인문학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암군의 목표는 '영암군민 누구나 문화관광해설사'이다. 영암군민이 일상에서 영암을 만나고, 기록하고, 남기는 과정에서 지역의 전설과 민담 하나, 관광지 한 곳을 방문객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로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한다.

2024년 인문도시팀을 신설한 영암군은 그동안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 진흥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인문도시 정책성 확립에 나섰다.

영암 인문의 살아있는 실체인 영암군민을 주제로 융합하고, 스스로 영암의 인문을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나서는 '영암형 인문도시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주제로, 매월 달력에 인문축제가 그득그득 펼쳐지는 인문도시 영암의 계획을 안내한다.

◆봄, 영암의 인문을 '만나다'(3~5월)

4월 왕인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인지도의 작가들이 '영암 인문학 강연'으로 연중 정기 인문학제의 장을 연다. 영암군은 영암군민은 물론이고, 가

까운 시·군의 주민도 강연을 듣기 위해 영암을 찾는 인문 브랜드로 정기 인문학 강연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5월에는 도감사 템플스테이와 까리파스농장 체험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영암 인문학교 - 영암의 사계'가 시작된다. 누구나 자연 속에 머물며 지역공동체와 교류하며 삶을 성찰하는 영암 인생학교가 펼쳐진다.

영암 초·중등학교에는 영암 역사인물 포스터를 배포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최지몽, 최덕지, 덕진여사, 최경창, 신희남, 양달사, 김치홍, 양방매 등 지역 인물을 학교에서 만나도록 해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기르도록 돕는다.

◆여름, 영암의 인문을 '쓰다'(6~8월)

6~10월에는 '인문주간'이 이어진다. 과거 단발성 강연·공연에서 올해는 영암의 생태·자연·사람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문주간은 진화한다. 인문주간 참여자들은 탐방, 인터뷰, 글쓰기 등으로 영암을 해석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해 공유한다. 영암군은 '영암 인문학 기록집' 발간으로 인문주간을 남긴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길위의 인문학'으로 탐방과 강연을 결합한 인문 지리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봄에 시작한 영암 인문학교도 7~8월 여름 프로그램으로 영암군민을 만난다.



◆가을, 영암의 인문을 '선보인다'(9~10월)

9월 매력 넘치는 지역 행사로 자리잡은 반딧불이축제를 배경으로 '최지몽 천체관측 대회'를 새롭게 선보인다. 영암 출신 고려 별 박사 최지몽의 생애를 따라 우리의 천문학의 역사를 살피고, 별과 우주 이야기를 나눈다. 천체관측대회는 가족참여형 경연으로 인문 콘텐츠의 폭을 넓일 예정이다.

같은 달 '영암 아트북페어'는 책잔치를 확장한 행사다. 올해는 그림책·일러스트 공모전과 수상작 전시, 도서전, 독립 출판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출판 문화 플랫폼으로 영암군민을 맞는다. 북페어 참가 영암군민들은 관람객에서 문화 생산 주체로 나는 책 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10월 국화축제와 마한문화축제에서는 캘리그라피 주소 만들기로 생활에

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체험 행사로 주민 인문 체감도를 높인다.

◆겨울, 영암의 인문을 '남긴다'(11~12월)

영암군은 올해 연말을 인문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해로 이어가는 시기로 정했다. 11~12월 인문학교 겨울 과정 운영과 함께, 인문주간, 강연 콘텐츠, 인문학사 참여 결과물 등을 정리해 인문도시 자산으로 축적하고, 이 자산은 미래 세대에게 영암 인문학의 현재를 알리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영암군민을 인문의 주체로 세우고, 영암만의 인문 콘텐츠를 브랜드화해 누구나 지역의 품성한 인문을 전파할 수 있는 영암형 인문도시 모델을 구축하겠다. 내년 영암군 방문의 해가 영암군민의 인문 역량으로 성황을 이루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주 남구, 전시작가 위한 '양림문화센터' 주목

전시회 개최 지역작가 및 단체 공개 모집... 내달 11일까지 접수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작품 전시회 공간이 필요한 지역 작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양림문화센터 전시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28일 "양림동 탐방객들에게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작가들의 왕성한 작품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양림문화센터 전시작가·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림문화센터는 양림오거리에 있으며, 양림문화센터 내부에는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지하 1층에 전시 공간 3곳을 갖추고 있으며, 이중 20평과 9평 남짓의 제1전시실과 제3전시실에서 작품 활동을 펼칠 작가와 단체를 모집한다.

평면과 입체, 복합, 체험 프로그램 등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남구에 거주하거나 관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단체는 우대한다.

또 지역민과 협업해 전시회를 열 계획이거나, 대중문화 보급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발된 작가·단체는 전시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를 안내하는 홍보 현수막 제작도 지원한다. 지원서는 오는 2월 11일까지 접수하며, 신청 서류는 양림문화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art_travel_cente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4회연속 '문체부 우수기관' 인증

시민참여형 전시 기획·맞춤형 교육 등 접근성·만족도 향상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역사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운영 역량과 공공성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종합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국가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돼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문체부는 올해 전국 304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교육 운영 ▲소장자료 관리 ▲조사·연구 ▲조직·인력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2017년·2019년·2022년에 이어 2026년까지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시민 참여형 전시를 기획해 광주의 역사와 민속,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접근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의 역사·민속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해 전시와 교육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정책 방향인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 확대'와 부합하는 우수 운영 사례로 꼽힌다.

이부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우수기관 4회 연속 인증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성과이자, 시민과 함께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광양금호도서관은 신년을 맞아 오는 2월 21일(토) 오전 10시 30분, 금호도서관 음악당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식이 만든 겨울동화」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마련됐으며, 초등학교와 보호자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휘자가 직접 곡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해설을 더해 클래식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금호도서관은 예술 분야를 특화 주제로 선정해 음악·미술 등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책과 연계한 차별화된 문화 공연과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참가자 모집

바흐·베토벤에서 드라마 OST까지, 우리 가족 첫 오케스트라 경험

이번 음악회 역시 그 연장선에서 광양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하고, 지휘자 윤여원이 해설자로 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연 관람과 함께 1대1 악기 레슨과 사진 촬영 등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운영해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참여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공연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레퍼토리는 바흐와 베토벤의 클래식 명곡부터 드라마 OST, 대중가요

까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선보여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가족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광양시심포니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예술 특화 도서관인 금호도서관에서 클래식의 가치와 품격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완성도 높은 공연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음악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주말, 가족과 함께 한낮의 오케스트라 향연을 즐기며 클래식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